

남원교도소 신축 사업 본궤도

법무부, 왕정동서 사업설명회
729억 투입 정원 500명 규모
2026년 착공·2028년 준공 목표



지난 24일 남원시 왕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남원교도소 신축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의 '남원교도소 신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남원시는 최근 왕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법무부 주관 남원교도소 신축 관련 사업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한국부동산원,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설계 용역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에게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상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안내했다. 남원교도소는 수용 정원 500명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729억원이 투입되는 교도소는 남원시 화동동 산 30번지 일원 15만660㎡ 부지에 연면적 2만1185㎡로 지어진다.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설계 용역은 지난해 12월 전문 설계업체 대상 입찰공고를 거쳐 올 3월 선정된 용역사가 담당하고 있다.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기본설계 270일·실시설계 270일)이다.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감정평가 등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교도소 신축 사업은 상주 직원 등 인구 유입으로 주변 상권, 교통 및 숙박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이라며 "2026년 조기 착공을 위해 법무부의 긴밀한 업무 공조 체계를 유지해 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파머스빌리지' 공유오피스 거점으로

워크케이션 활성화 공모 선정...사무·독립형·휴게공간 등 조성

고창군이 상하농원의 '파머스 빌리지'를 다양한 공유오피스 거점공간으로 조성한다. 고창군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워크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상하농원의 '파머스빌리지'를 리모델링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코워킹 스페이스 콘셉트의 공유오피스 거점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사용자 목적과 편의에 따른 사무, 독립형, 휴게공간 등을 조성한다. 상하면 상하농원은 6차산업 성공사례이자 가족·연인들의 체험여행지로 각광받는 곳이다. 숙박시설과 스파, 수영장, 지역 농특산품을 활용한 먹거리, 스마트팜(딸기수확 및 잼 만들기), 목장체험(송아지 우유주기 등) 등 계절별, 테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인 워크케이션 거점공간으로서 기업 등의 근무자에게는 새로운 관광트렌드이자 복지모델로, 지역에서는 생활인구를 유인하는 체류형 관광상품으로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

기대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의 7가지 보물과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워크케이션 관광 거점공간을 더 육성해 체류형 관광마케팅을 선도하고 지방소멸위기 극복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에 그린바이오 산업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생산과정 자동·고속·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공모사업을 수행할 정읍 첨단산업단지 내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추진 전략 '농식품분야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총 99억을 투자해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과 생산과정을 자동화·고속화·표준화하는 첨단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 선정을 위해 초기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그린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토대로 첨단분석시스템을 바로 구축·운영할 수 있는 장비·시설·인력이 확보된 최적 적합지임을 강조했다. 사업은 지난해 2월 미생물분야 전국 유일의 그린바이오 거점으로 지정된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수행하게 된다. 특히 센터가 현재 진행 중인 'GMP기반 농축산

용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과 '농축산용미생물 공유인프라' 사업이 완료되면 소재 개발부터 상품·제품화, 대량생산까지 전방위적인 기업지원 인프라를 확보하게 돼 명실상부한 미생물분야 종합지원기관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공모 선정을 기점으로 그간의 성과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기업지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업을 유치해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이순신 탄신 479주년 '되새기는 호국정신'



정읍 충렬사에서 탄신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79주년을 맞아 지난 28일 정읍시에서 '충무공 탄신제'가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정읍충렬사보존회(회장 조택수) 주관, 정읍시 후원으로 이학수 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고경운 정읍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청 옆 충무공원 충렬사(忠烈廟·사진)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제관으로는 초헌관 이학수 정읍시장, 아헌관 윤준병 정읍·고창 지역구 국회의원, 종헌관 고경운 정읍시의장이 맡았다. 정읍시와 보존회는 태인현감(현 정읍시 태인면)을 지낸 충무공 이순신 현감(장군)의 유덕을 기리고자 세워진 충렬사 사당에서 매년 충무공의 탄신기념제를 지내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은 1589년 정읍현감으로 있을 당시 서해 유성룡의 추

천으로 고부사리 첨사로 승진한 이후 반포 첨사·진도 군수를 지내고 47세의 나이에 전라도수군절도사 이후 삼도수군절도사가 됐다. 정읍충렬사는 초대 정읍현감으로 부임했던 충무공 이순신을 추모하기 위해 8·15광복 이후 기념회를 조직 전북도내 학생과 각계의 성원으로 현위치에 건립했다. 경내에는 사당인 충렬사와 광의당, 효충문과 선양루가 세워져있으며 사당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하고 있다. 조택수 정읍충렬사보존회 회장은 "이순신 장군이 태인현감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이 정읍에 오래 남아있게 해달라고 청원할 수 있었던 애국, 애민 정신이 뛰어난 지도자였다"며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하는 충무공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후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남원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시 20만원

남원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2019년 100명, 2020년 225명이었던 자진반납자가 2021년에는 191명, 2022년에는 200명, 2023년에는 291명

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자체 예산을 더해 300명까지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회에 한하여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운전면허 반납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혹시라도 생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분들께서 면허반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현재 시행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비롯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향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